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48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31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이달희 · 김위상
김기현 · 주호영 · 박성민
박상웅 · 김 건 · 진종오
임이자 · 이종배 · 김정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,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그 결과 법인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,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하여 그 부당이득을 결손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임(안 제77조의2).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2제1항 본문 중 “보험료, 연체금”을 “보험료, 제57조에 따른 징수금, 연체금”으로, “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”을 “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(제57조에 따른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, 체납처분비의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보험료”를 “보험료, 제57조에 따른 징수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7조의2(제2차 납부의무)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<u>보험료,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(「국세기본법」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)</u> 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. 다만,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	제77조의2(제2차 납부의무) ① ----- ----- <u>보험료, 제57조에 따른 징수금, 연체금</u> ----- ----- <u>보</u> <u>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</u> <u>(제57조에 따른 징수금 및 그</u> <u>에 따른 연체금, 체납처분비의</u> <u>경우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을</u> <u>말한다)</u>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사업이 양도·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	② ----- -----

